



카드위조등 개인신상 유출 범죄 속출

정보도둑 신용사회 좀 먹는다

"우편물·카드비밀번호 등 관리철저"

신용카드와 개인용컴퓨터의 급속한 확산 등이 신용-정보사회를 실감케 한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전자화폐의 사용도 일반화된다. 그만큼 물류, 이동비용, 시간이 절약된다. 몇일 걸리던 일이 단박에 끝나 단박을 두드리는 것으로 해결된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도 편리해졌다. 신용-정보사회의 가장 큰 이점은 편리한 것이다.

그러나 편리만큼 위험이 뒤따른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전체의 정보 및 신

용은 대혼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는 곧 범죄로 악용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위조범죄는 개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개꼴로 신용카드가 보급돼 있다. 신용카드 범죄피해는 무차별적이고 불특정다수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가 되고 있다. 8월까지 적발된 신용카드 위조 건수는 1천4백9건으로 지난 한 해 9백41건보다 2배 가까이 발생했

다.

지난 10월 서울지검은 신용카드조회 서비스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가입자의 정보를 빼내 카드를 대량으로 위조, 5억7천여만원을 챙긴 신용카드 위조단 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서비스업체 직원을 매수해 입수한 카드회원 정보를 이용, 1천여장의 카드를 위조해 일본 신간선 정기권을 구입해 되팔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겨왔다.

우편물을 훔쳐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최근들어 늘고 있다. 우편함에는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호출기번호 등 개인

정보들이 담겨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9월말 송파구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협박전화

●●●의●●● 땃땃치못한 재물 취하지 말라

조선중기 문서스님은 도둑질은 오계를 범하는 무거운 죄라며 크게 경계했다.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몰래 훔치거나 사취하거나 또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 이것들이 모두 도둑질에 속하니 경계 말씀하시되 '차라리 손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땃땃치 못한 재물을 취하지 말라' 하셨다." (미륵율의요략불두계)

신용카드 사용자 비밀번호를 입력

사건의 범인이 우편함에서 해당가정의 신상정보를 빼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우편물도둑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범죄대상은 개인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정보의 유출도 나타나고 있다. 걸프전쟁중 미국의 군사기밀이 해커들에 의해 이라크에 제공된 적도 있었다. 이라크가 제공된 정보를 무시했지만,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정성운 기자

<춘추씨전>에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아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의미의 식언(食言)이란 말이 있다. 12월 18일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지도자의 언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축구 국가대표팀 차범근감독의 공개적인 특정 신앙 표출을 둘러싼 '기도논쟁'도 공인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공인의 언행이 어떠해야 할 지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 보살은 언행이 서로 어울리며 본성이 정직하다. <문수보살심대경>을 품을 단속하여 진실 좋은 일이다. <법구경>을 말(차)과 저울로 남을 속인다가나, 마음은 악하면서 말만 착한 체하여 언행이 성실치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 <분별업보경>을 속마음이 정직하고 겉모양이 유화(柔和)하며, 모든 사욕(邪欲)을 떠나고 진실한 행위를 지키며, 최고의 진리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고요하고 견고해서 평등한 경지에 머문다면, 이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미증정법경>을 만일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스스로 실천한다면 나는 너를 훌륭한 사내라고 인정하리라. 그러나 네가 너의 말을 들으니 말과 행동이 결맞지 않으니, 네 마음을 길들이고 고요히 쉬라. <집이환경>을 수보리아, 불퇴전의 보살은 어느 때거나 모든 말이 내용 있고 남을 이롭게 하는 점이 있게 마련이니,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으며, 남의 미오(美惡) 장단(長短)도 살피지 않는다. <불모출생경>을 거짓을 말하고 나쁜 곳에 빠지므로 '내가 하지 않았다' 한다. 이 천한 업은 뒷날에 나쁜 곳으로

■ 사문이 되기는 했어도 몸과 입을 조심하지 못하여, 거칠고 나쁜 말로 중상하는 바가 많으므로 못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지혜있는 이가 아끼지 않으며, 죽고 나면 삼도에 윤회하여 스스로 나고 스스로 죽어 괴로움이 끝이 없다. <법구비유경>을 심견(心見)을 정직히 하여 속이지 말고 아첨하지 말라. <화엄경>을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거짓말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말하는 내용이 지성(至誠)스러우며, 말이 진실하며, 전하는 바가 도리에 맞으며, 말이 시기에 적합해야 한다. 꿈 속에서라도 도에 벗어나는 일을 말하지 않고, 늘 바른 가르침의 경전을 설해야 한다. 세속의 행위에 관한 쓸데없는 일을 말하지 않으며, 이간하는 말을 떠나 저쪽의 나쁜 말을 이쪽에 전하지 않고, 이쪽의 나쁜 말을 저쪽에 말하지 않으므로써 다툼을 화해시켜 원한을 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점수일체지덕경>을 거친 말을 멀리 함으로써 저를 해치고 남을 해쳐서 피차 함께 해입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저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 <대아미타경>

●●●의●●● 품 단속하고 진실 좇아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사회 각계인사의 자원봉사자 등 3천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검 주최로 10월 26일 서울 을밀대공원 제2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교주변 청화를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생활정보

자동차 공회전 불필요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연간 12만7천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오존과 매연공해도 줄일 수 있다. 87년 이후 생산된 승용차의 대부분은 연료공급과 연소·배기 등이 모두 전자장치로 제어돼 요즘같은 날씨에는 공회전없이 출발시켜도 차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수돗물 누수확인 하려면
수도요금에 갑자기 많이 나오거나, 한밤중에 물세는 소리가 들리면 수돗물 누수를 의심해봐야 한다.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계량기 통의 뚜껑을

열고 수도계량기 유리안에 있는 '별침'(★모양의 빨간침)이 돌고 있으면 물이 새고 있는 것이다. 누수지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국민방위 121번에 신고하면 누수지점을 탐지해준다.

여성보호전화 1366 개설
보건복지부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연중무휴로 24시간 전화상담을 해주는 '여성보호 응급전화 1366'을 내년부터 가동한다. 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나 미혼모 등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은 전국 어디서나 국민방위 1366번으로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노인 70% 따로살기 원해

자식과 함께 살면 식구들이 외롭지 않고 손자 손녀와 지낼 수 있어 좋지만 노인 10명중 7명은 출가한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주부모니터들이 자식과 함께 사는 노인 16명과 따로 사는 노인 22명 등 모두 38명에게 물어보니 '따로 사는 게 좋다'고 답한 사람이 70% 가까운 26명이었다. '지금은 함께 살지만, 여건이 된다면 따로 살고 싶다'는 이도 16명중 9명이었다.

따로 살고 싶은 이유는 '세대갈등' '육아부담' '자식 부부싸움하는 게 보기 싫어서' '시골생활을 하고 파서' '어른노릇하기 힘들어서' 등의 이유였다.

산에서 흡연 벌금 30만원

앞으로 동네 뒷산이라도 담배를 피우서는 안된다. 산림청은 24일 담배공초 투기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림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산에서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거나 흡연, 담배꽂이를 버리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림청은 산림공익근무요원 1만2천명과 각 시·군 산림과 직원 8천여 명을 전국 산림에 배치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기로 했다. 또 산림실화피의 벌칙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제의

대한적십자가 북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상봉면회소 설치를 제의했다. 정원식 한적총재는 10월28일 순수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하루속히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면회소를 판문점 등 남북한이 합의하는 장소라면 한반도내 어디에든 설치하자고 말했다.

에버랜드 환경친화기업 지정

삼성에버랜드가 레저·서비스업 부문에서 최초로 환경친화기업 지정 받았다. 에버랜드는 10월 28일 첨단 오피스처리시설과 환경아카데미(환경교육)를 실시하는 등 꾸준히 환경경영과 환경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환경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최대 7천5백여명의 오피스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음식쓰레기를 전량 사료화해 인근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다.

민항기 북한하늘 통과 가능

대구와 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하는 국제항로 개설을 위한 양해각서가 10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정식서명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3일부터 우리나라 민간항공기도 북한 상공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해각서에는 분쟁발생시 해결절차를 비롯 항로설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됐다. 대구-평양국제 소간 직통전화도 개설된다.

울란 폰팅업자 무더기 적발

울란 폰팅업자들이 무더기 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울지검 북부지청은 10월 27일 외국 사설전화업자와 결탁해 국제 음란폰팅 영업을 해온 혐의로 최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이스라엘 네델란드 등 외국 사설전화업자와 결탁해 국제 폰팅업을 하기로 하고 국내 스포츠

신론 등에 광고한 뒤 이용객에게 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변호사가 남의 땅 가로채

서울지검은 10월 29일 남의 땅을 가로챈 혐의로 법 무연수원장을 지낸 정모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변호사는 최근 시가 60여억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이모씨에게 상속세 등을 물지 않기 위해 부동산을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다.

울수도에 골프연습장 '물'의

대학교수 등 골프동호인들이 문화재보호구역이자 절세도대지인 부산 울수도에 갈대밭 2천여평을 훼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물의를 빚고 있다. 관할 사하구청측은 울부부터 모태학 교수 등이 갈대밭을 훼손한 뒤 아침 저녁으로 골프연습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며 이들을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세상 품

디지털 음성수첩

운전중이거나 필기구 없이 급히 메모를 해야 하는 경우 버튼만 누르면 쉽게 녹음할 수 '디지털 음성수첩'이 새로 나왔다. 이 제품은 반도체 칩이 내장돼 있어 녹음한 내용을 쉽게 다시 찾아 들을 수 있다. 또 모든 동작은 LCD 역정화면으로 표시돼 사용하기 편리하며 녹음시간도 60분까지 가능하다.



음질면에서도 TAPE방식보다 깨끗한 장점이 있다. 가격은 11만4천원. 스카이전자 (02)992-5431

한 · 단 · 기 · 획

세계최초 오백아라한 성상으로 제작된 '98 새해 달력

- 가로×세로/30×610cm
- 4도 칼라
- 제본/13장 PVC Holder
- 주문/기본 500부
- 1부당 가격/W1,200
- 타지역 우송료 별도

★ 글 : 동곡 일타르스님
★ 사진 : 오 명 숙
★ 제작 : 한단기획

자비로 접수하여 주시는 불보살님과 스님들께 지성 귀의하옵니다. 그동안 저희 한단기획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98년 새해 달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불기 2542년 달력은 팔공산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제14호)에 모시고 있는 526의 나한성상님을 한분도 빠짐없이 실어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최초 오백나한님의 모습을 담은 이 달력의 표지에는동곡일타르스님께서 오백나한님을 찬탄하는 글을 써 주셨습니다. 학계의 자료가 되고 불교 달력에 큰 획이 될 오백아라한 98년 달력에 여러 대덕 스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한단기획이 되겠습니다.

한단기획 대표 박 현 상장

200여년전 영파큰스님 친필로 제작되었던 「오백성중청문책자」 재현

가로×세로/37×50cm
200여년전 영파큰스님께서 쓰신 5백성중청문책자가 거조암 영산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나한님을 모신 사찰이나 문화관에서 소장할 수 있도록 한지를 사용하여 원본과 똑같이 제작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 한정주문판매: 200권
- 가 격 : w70,000

■ 주문처 ■
한단기획 출판제작부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3-48번지
전화 : (053)255-8612 FAX : 256-8672